

“공존-평화 위해 5대 결사 동참을”

총무원장 자승스님 ‘세계평화기도회 연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종교간 교류와 세계평화를 위해 생명과 평화, 문화, 나눔, 수행 결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0월27일 이탈리아 아시시 바실리카성당에서 가톨릭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주관한 ‘세계 평화기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계 불교도 대표로서 연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계를 하나의 꽃으로 비유하며 초연결(Hyper-connection) 시대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 연결의 파급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널리 확산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나와 나는 별개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일찍이 불교는 연기적 세계관을 통해 이런 진리를 간파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세계는 하나의 꽃이며 모든 생명은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며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에 대한 폭력과 테러는 종교의 생명존중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한 종교간 교류와 세계평화를 위해 생명, 평화, 문화, 나눔, 수행 결사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안하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교나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한

‘생명결사’,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 공존과 상호존중을 통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평화결사’,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문화의 충돌을 배움과 상생으로 승화해 정신문화를 다 함께 창달하기 위한 ‘문화결사’를 추진할

10월 26일~28일
이탈리아 아시시 방문
가톨릭 교황과 면담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빈곤과 기아,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결사’, 진리를 몸소 체득해 각자의 삶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수행결사’도 함께 전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마지막으로 한국불교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에게 천명하며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교평화 선언’을 소개한 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의 안락

과 행복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며 “그들과 함께 지구촌 곳곳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고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계 불교도 대표로서 전 세계 종교지도자 300여 명에게 5대 결사 동참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데 이어 묵언기도, 순례자들과의 행진, 교황베네딕트 16세와의 면담 등 2박4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지난 10월29일 귀국했다.

한편 ‘진리의 순례, 평화의 순례’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 평화기도의 날 행사는 전 세계 각 종교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해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는 반성과 대화, 기도 등을 통해 진실과 선함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1986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처음 제안해 마련된 뒤 지난 2002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렸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방콕, 고비 넘겼지만 안심 못해

조계종 구호봉사대 급파...본지 동행취재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은 태국을 돕기 위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대가 지난 10월31일 현지에 도착했다. 수도 방콕은 10월31일 현재 다행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피해는 면했지만, 도시 전역에 번져있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정부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대형 상점과 호텔 등은 피해를 막기 위해 1m에 달하는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시멘트벽을 만들었다. 남자 성인 어깨 높이의 함판과 벽 사이를 실리콘으로 접착한 건물들도 눈에 띄

었다. 겉보기에는 어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침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대거 파타야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한산한 분위기였다.

선발대는 가장 먼저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을 찾았다. 이번 홍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활동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대사관측은 ‘방콕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물이 빠지고 나면 약 300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인성 질병과 9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우려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호 상보>

태국 방콕=홍다영 기자



한중일 불교 ‘황금유대’ 지속

한중일 불교 ‘황금유대’ 지속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양 낙산사 일원에서 개최됐다. 한중일 3국 불교대표들은 첫날 양양 솔비치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인사를 나눴다. 왼쪽부터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 중국불교협회장 현인스님.

“불교, 사회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

불교사회연구소 ‘한국의 사회문화 대국민 의식조사’ 발표

평화적 종교·미래 기대 ‘최고’ ... “불자 사회참여는 소극적”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교를 불교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장 평화적인 종교와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종교에 관한 질문에서도 불교가 최고점수를 받았다. 반면 불교의 사회적 대안제시 능력에 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불자들이

은 사회 참여와 공익적 가치 실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다. 요컨대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호

감도가 높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불자들은 현실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다.

▶관련기사 7면

불교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불교)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파악, 정책 연구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한국리서치에 용역을 맡겨 지난 9월 26일부터 20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에서 만 18~69세의 성인 남녀 1500명을 표본 추출해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01개의 설문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설문 내용은 한국사회의 주요현안(23항목), 종교현안(33항목), 한국불교와 조계종에 대한 주요현안(21항목), 종교신자를 대상으로 종교생활에 대한 질문(14항목),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0항목)으로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52%.

조사비용은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화엄회와 법화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며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에도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매년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시행해 조계종의 정책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앙기록관 수집기록물 전시회
- 특별 유성남 제현미희 기획전 -
○ 전시기간 : 2011년 11월 4일(화) ~ 18일(금)
○ 전시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02)2011-1712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신문사

社告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는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비엔티엔시 싸이타니구 지역 ‘나움 움마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COLA(Cool Learning Asia)’ 공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1명의 콜라는 한 구와 1만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콜라 한 병은 학교건축과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 후원방법 : 1만원 • 목 표 액 : 5000만원
- 후원계좌 : 외환은행 630-007156-170 예금주 지구촌공생회
- 문의 :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불교신문사 (02)733-1604

지면안내

제1차 연재특 기획한공모
당선작 발표 3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책 세상’ ... 13~15면

30년전 신세대 스님들
종단 위해 온 몸 던지다 ... 17면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미래세계와 불교 Buddhism and the Future World

불기2555년 11월 12 ~ 13일(음.10.17 ~ 10.18), 양일간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흥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조사님께서 천태종을 중창하신 뜻을 기리고, 변화하는 미래세계에 불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5년 11월 12일(土) ~ 13일(日)(음.10.17 ~ 18) 】
【 장 소 : 금강 대학교(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

주최 _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_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후원 _ 문화체육관광부 · 금강대학교 · 금강신문사

학술회의 일정표

11월 12일 (토)	11월 13일 (일)
First Room 10:00 ~ 10:40 개회식 10:40 ~ 12:00 기조발표 - 권기중(원각불교사상연구원) : 미래세계의 종교와 원각사상 - Paul Harrison(Stanford University) : 미래세계와 불교 12:00 ~ 13:30 점심식사 제1석선 : 종교는 미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30 ~ 17:00 - 김용표(동국대) : 종교문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의 불교 - 포스트모던 사회와 관련하여 - Asanga Tilakaratne(University of Colombo) : 종교윤리와 새로운 세계 질서 - Leonard Swidler(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 불교와 정치 - 紀華傳(中國社會科學院) : 빈부·남녀 차별과 불교의 역할 - 유원철(서울대) : 불교수행법의 사회화 - 武寬超(比叡山延曆寺執行) : 천대에 있어서 관음상성과 구제의 원리	First Room 제3석선 : 다문화시대 종교 간의 화합 09:40 ~ 12:20 - 황순일(동국대) :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 - 이도훈(한양대) : 불교에서 타자의 개념과 자타상성의 길 - 박해원(서울대) : 불교와 유교의 갈등과 조화-한국의 경우 - 엄한진(한림대) : 한국가주 국제이주민에게 종교는 무엇인가? 12:20 ~ 14:00 점심식사 제4석선 : 과학시대의 불교 14:00 ~ 17:00 - 최종석(금강대) : 과학시대의 불교의 인간관 - Damien Keown(London University) : 불교도는 장기이종자가 되어야 하는가? -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행동과 의미 그리고 인과율 - 宋立道(中國佛敎文化研究所) : 현대 생태환경의 공경과 불교의 생태윤리 자원 - 양형진(고려대) : 상대성이론과 무아와 무상 - Bernard Faure(Columbia University) : 불교 명상과 뇌과학 Second Room 제5석선 : 한국불교, 어디로 가야하는가 09:40 ~ 12:20 - 조성택(고려대) : 근대한국불교사 재고 - 조계종의 민족불교 정체성 비판 - Robert Buswell(UCLA) : 한국불교-대륙적 관점 - 신규복(연세대) : 한국불교에서 出家와 在家의 관계 - 石井公成(駒澤大) : 한·일 불교학의 미래 - 黃夏年(中國社會科學院 世界宗教研究所) : 한·중 불교학의 미래 12:20 ~ 14:00 점심식사 제6석선 : 미래사회와 ‘圓覺思想’ 14:00 ~ 17:00 - 김상현(동국대) : 상월원각의 불교개혁사상 - 세운스님(천태종) : 불교수행의 새로운 지평 : ‘일심청정 관음주승’ - 이봉춘(동국대) : 미래사회와 한국천태종 - 李四龍(北京大) : 천대지관의 현대적 의미 - 多田孝正(大正大) : 마하지관과 중생구제

★ 발표자와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일, 13일 양일간 버스를 운행(오전 7시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앞, 오전 7시30분 서초구민회관 앞)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